

보도설명자료 (20. 10. 29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17개 시도, 민간 코세페
추진위, 업계와 함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코세페 추진중
(10.29, 국민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정부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하고, 17개 시도, 업계와 함께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범국가적 소비진작행사인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◇ 10월 29일 국민일보 <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‘코세페’ 코로나로 반쪽 행사될 가능성커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- 코로나19 복병 극복을 위해 오프라인 행사를 배제하기 어려우며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나 정부 예산으로 방역을 지원할 방도가 없어서 코세페가 딜레마에 빠짐
 - 참여 지자체의 76.5%가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중이며, 중소기업체의 특성을 고려할때 100%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
 - 올해 코세페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48억3900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거의 다 소진해, 결국 업체의 자율방역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정부·지자체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**안전한 행사**에 방점을 두고 **철저한 방역대응을 전제로** 업계와 함께 소비진작행사를 추진중
 - 업계·지자체 등 행사 주체별로 방역상황에 따른 **컨틴전시 플랜 마련, 방역관리에산 반영**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
- 이와 관련, 지난 10.4일 방대본 회의 및 방역당국 협의를 통해 방역단계별 **행사 운영 가이드라인** 및 **방역관리 세부지침** 마련하고,
 - 10.16일 정부·지자체 합동으로 행사 준비상황과 **방역관리계획**을 점검하였으며, 업계와도 **방역관리상황** 수차례 점검하였음
- 앞으로도 **방역관리와 경제활동이 조화**를 이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※ 문의: 유통물류과 김호성 과장(044-203-4380), 조진화 서기관 (044-203-4384)